

칼뱅 세계관의 주요 문제 (- 신과 상징 그리고 언어를 중심으로 -)

이오갑

프랑스 몽펠리에 신학대학 신학박사 그리스도 신학대학 교수

1-184-9701-13

영문요약

Problems of Calvin's Worldview – God, symbol and language

Collected Papers on Christian Language Culture. It is important to know Calvin's worldview, because of its effect on the formation of modern church, man and world. In his worldview, God has a central position and man become the object of work of his salvation. According to Calvin, God is majestic, supreme and transcendent. He is not perceived by the humble sense of man. Nevertheless, God, the Creator reveals in his creation. The nature and its things are regarded as to "symbol" which let Him know, in Calvin's expression, "image", "work", "sign", "figure" or "mirror"... of God. The symbols are not God Himself. They are only symbols, Therefore man must neither confine God to a symbol, nor imagine Him out of symbol. But man, the sinner fall in these errors. For this reason, God reveals through more sure, direct and clear human language than symbols in the nature, That is the revelation as Word. By the Word, man can obtai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knowledge for his own salvation. But man's language or letters which transfer the Word are only symbolic. Although they reveal, they are not God. God is great, and transcends them. Man must heard and understand God on the more again. By this worldview, man becomes those who respect things in this world. For exemple, nature, man, time, money, job... in which can reveal God's will, calling or blessing. And man becomes also those who can relativize them. In this way, the Calvinists in their real figures became both secular and transcendent. This calvinistic dynamism can explain the success of modern accident world. (Korea Christian University)

들어가는 말

“세계관(世界觀)”이라는 말은 독특하면서도 그 의미가 금방 이해되지 않는 다소 어려운 용어라고 하겠다. 그것을 영미권에서는 Worldview, 프랑스에서는 Vision du monde라고 하지만, 모두 독일어의 Weltanschauung의 직역이라고 생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말은 1800년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그룹에서 최초로 나타난 뒤, 슬라이에르마하가 “종교론”과 특히 “교육학 강의”에서 그것을 사용했다. 그 뒤를 이어 딜타이나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통용시켰다¹⁾.

그 “세계관”은 주체가 세계내에서 그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그에 따른 세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세계관은 단지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적으로 주체의 삶을 그 세계관에 맞게 재형성하고 이끌어 간다는 면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은 일단 한 번 세워진 다음에는 그 사람을 그 세계관에 부합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부르주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부르주와적 삶을 살고,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삶을 살게 마련이다. 것처럼 세계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태도나 그 세계 속에서의 삶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세계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와 삶의 방식이 재조직되어 왔던 역사를 갖는다. 물론 기독교는 크게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문화들을 거

치면서 새로운 관점과 해석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 결과 기독교는 다양한 삶의 방식, 혹은 존재방식을 보여 왔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관점과 해석, 즉 세계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형성을 가져 온 16세기 종교개혁의 사상이었다. 종교개혁과 그 사상의 대두로 서방교회는 크게 둘로 분열되었고, 그 뒤 나름대로 독특한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튀시앙 페브르가 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종교개혁들(r?formes)”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야 할 정도로²⁾ 다양한 기원과 사상적 교회적 특징들을 갖는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과 쾰빙글리, 칼뱅의 종교개혁이 다르고 또한 영국교회의 개혁이 달랐다. 물론, 전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개혁”이라고 단수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손쉽게 일괄적으로 묶어 놓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각 개혁들과 개혁자들의 다양성과 차이점들을 간과하게 되고, 그 결과 종교개혁의 풍부한 내용과 실상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각각의 개혁과 개혁자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장 칼뱅(Jean Calvin)과 그의 사상을 주목한다. 특히, 그의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칼뱅의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문제삼는가 그 점을 살펴보자.

1. 왜 칼뱅인가?

종교개혁자들 중에 더 넓게는 신학자들 중에 칼뱅처럼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인물도 드물다.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뚜렷하고도 독특한 족적을 남겼다. 그가 개혁하고 목회한 교회는 쥘네브교회였다. 당시의 쥘네브는 전통적인 상업도시로서 비교적 번영을 누렸으나, 도시민들의 지적이거나 도덕적·사회적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다. 그때의 시민들은 비도덕적이고 무질서했으며, 즉흥적이고 난폭하기까지 했다³⁾.

시민들의 그런 비도덕성은 누구보다도 칼뱅이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성향들과 부단히 싸웠다. 칼뱅이 사망하기 직전인 1564년 4월 쥘네브교회의 목사들에게 한 고별사에서 그는 “나는 여기서 지독한 싸움 속에서 살았다. 나는 저녁마다 문 밖에서 오-육십발씩 쏘아대는 화승총질로 조롱하는 사람들의 문안인사를 받았다. ...사람들이 개들을 풀어 놓고 쫓겨서 내 옷을 잡아 뜯고 내 뒷다리를 물게 했다. 나는... 쥘네브에서 일어난 삼천 개의 소란을 막아냈다...”고 담담하게 회상했다⁴⁾.

칼뱅은 그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쥘네브대학교를 설립했다. 시민종합병원을 세워서 치료와 구호를 겸하게 했고, 고리대금업을 종식시켰고, 자본가들과 오랜 협상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를 제한했다. 많은 수가 중소상공업자들이었던 망명자들의 정착과 자활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기금과 저렴한 대출금리는 쥘네브에 많은 중소기업들과 상업체들이 들어서게 했다. 퇴폐와 향락의 풍조를 몰아내고 시민들의 삶을 선하고 건강하게 재조직했다⁵⁾. 오늘날 쥘네브와 그리고 넓게는 스위스가 세계최고의 부유한 나라면서 동시에 사회가 잘 정리·운영되며, 국민들이 바르고 선한 나라가 된 것도 실은 칼뱅과 종교개혁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의 사상과 교회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크게 보았던 것도 이유는 있다⁶⁾. 실제로 칼뱅은 쥘네브에서 시민들의 삶과 제도를 일신했고 크게는 스위스, 그리고 그의 영향권 속의 다른 도시들과 국가들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칼뱅이 가져 온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조를 사회나 문명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피상적일 뿐이다. 칼뱅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람이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목회자였으며, 신학자였다.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일차적인 관심도 교회였고, 그의 업적도 우선 교회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를 갖는다.

칼뱅의 개혁으로 형성된 교회는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갖는다. 그 교회는 매우 민주적이면서도 성직자의 지도와 훈련을 잘 수용하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다. 두 메르그가 요약해 준 바에 따르면 칼뱅의 교회들은 “합의된 계약에 근거한 제도적 교회”이다. 칼뱅의 교회는 지침과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신자들은 목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서명했다. 그 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했고, 모든 대표자들을 선거로서

선출했다 더군다나 깔뱅의 교회에는 성직자제(clerg?)가 없다. 목사는 직무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이고 평신도적(laique)이다. “토론하는 회의에서 보면 언제나 평신도들은 목사보다 다수이다⁷⁾.”

깔뱅의 교회는 확산과 전파를 거듭해서 오늘날 스위스와 프랑스·네덜란드·독일·헝가리의 개혁신교회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미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장로교회들을 이루고 있다. 그 여러 대륙에 걸친 광범위한 교회들이 모두 주로 깔뱅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에다 자신들의 사상적·교회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깔뱅주의의 교회들은 또한 독특한 인간성의 사람들을 길러냈고, 현재도 길러내고 있다는 점이 흥미를 갖게 한다. 깔뱅의 사상적 영향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될까?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상 속에서 크다고 할지라도 모두 똑 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 긍정적인 인간성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깔뱅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도 깔뱅의 교회들 안에서 바람직하게 형성된 긍정적인 인간형들을 보면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다.

우선, 깔뱅의 교회들, 그 신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자. 무엇보다도 깔뱅 자신과 쥘네브를 중심으로 한 볼어권 개혁도시들의 개혁자들과 그 신도들, 위그노라고 불렀던 프랑스의 개혁신교도들, 네덜란드의 이른바 “반란자들(guile gueux)”,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절대 권력자들의 권위와 횡포에 도전했고 싸웠고, 그리고 이겨냈거나 패배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패배했을 때도 그들은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깔뱅 자신은 파렐 등과 함께 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 교권까지 장악하려는 시정부에 맞서서 심각하게 대립했던 경험을 가졌다⁸⁾. 흔히 깔뱅을 호메이니와 같이 무시무시한 신정주의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는 정치적인 권력은 전혀 갖지 않았었다. 그는 목사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목회적이고도 교육적인 사명만을 감당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그는 성만찬이나 교육에 관계된 목사들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려는 시정부의 압박에 대항하다 쥘네브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졌다. 그가 쥘네브에 다시 돌아와서도 단지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세우고, 변호하고, 멀리있는 개혁자들과 신도들, 기타 필요한 인물들에게 서신을 통해 부단히 권면하는 것이 그의 일의 전부였다. 그가 쥘네브에서 시민이라는 가장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된 것도 죽기 다섯 해전인 1559년 성탄절에 이르러서였을 뿐이다⁹⁾.

어쨌든 깔뱅의 영향으로 일어난 교회들과 신도들은 침묵과 굴종만이 강요되는, 그래도 거기에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던 시대에 절대권력에 대항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 예가 바로 프랑스 개혁신교도들, 네덜란드의 “반란자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다. 그리고 그런 전통과 성향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히틀러치하에서 독일 고백교회운동들, 군부 독재와 억압으로 얼룩졌던 한국이나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여 준 개혁신교회, 장로교회들의 희생적이고도 헌신적인 투쟁에서 다시 찾아 볼 수 있다¹⁰⁾.

그런 점에서 볼 때, 깔뱅이 근대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미쳤던 영향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즉 그와 그의 교회들이 근대적이고 진취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과 교회, 그리고 문명을 가져오는 데 공헌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깔뱅의 세계관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즉 그런 다양한 결과들은 그가 새롭게 보고 해석한 세계, 그리고 그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필요하고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2. 그의 신중심적 세계관

깔뱅이 새롭게 세웠던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중심주의라는 점이다¹¹⁾. 다시 말해서 그의 세계관은 신중심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신중심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태도 있었던가, 없었다.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언제나 신중심주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중심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종교개혁 직전의 기독교, 즉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로마교회는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중심적인 종교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중세 이후 로마교회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

기 위한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신자는 그 공적을 쌓기 위해 교회가 요구한 것들을 부단히 수행했다. 미사 등 각종 종교의식의 수행·금식·순례·십자군·종군·자선, 심지어는 면죄부의 구입에 까지 그 모든 종교적 실천이 바로 자신의, 그리고 이미 죽어 연옥에 가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들의 수행의 목적은 바로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점에서 그들의 종교는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인간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까지도 손 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로마교회의 종교, 즉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려는 의지와 실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은 물론 칼뱅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마르틴 루터가 이미 그점에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로마교회의 그런 사상과 사상의 주창자들을 “영광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렀다¹²⁾. 그들은 인간이 낮아지지 않고, 종교와 도덕의 높은 단계까지 스스로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 의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내세웠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다. 죄인은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루터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집중했고 강조했다. 그런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칼뱅은 같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보면서도 루터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대응했다. 칼뱅은 루터와 공유하는 그리스도론이나 칭의론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칼뱅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세웠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져가고자 했다.

한 예로, 칼뱅은 1542년 쥘네브 교리문답의 1조에서 “인간의 제일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신학과 모든 교리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중심점을 가지게 되었다. 칼뱅과 칼뱅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토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A Dieu seul la gloire!)”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 점에서 칼뱅을 영성과 경건의 역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에 비유한 까디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 그것은 이전에는 종교의 중심에 인간을 두었던 반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었고, 따라서 과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인간을 돕는 존재였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¹³⁾.

3. 칼뱅에 따른 하나님

칼뱅의 신중심적 세계관이 교회와 인간형성, 그리고 역사에 미친 영향을 더듬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칼뱅주의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칼뱅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났는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칼뱅 자신의 사상 속에 있는 특징과 역동성,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을 찾아 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신중심주의의 내용과 특징을 그의 주요 신학 속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살펴 봐야 한다. 그것은 주로 그의 신론과 신의 계시문제, 그리고 계시를 통해 신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방식으로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등을 찾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칼뱅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의미들로서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물들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우월성과 존귀성, 그리고 절대성을 갖는다. 하나님은 지고하고 위엄있는 존재이다. 그분은 “무한하며¹⁴⁾” “영적인 본질¹⁵⁾”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상징도 그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¹⁶⁾. 요컨대, 그분은 영적이고 무한한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깁뵁의 하나님의 그런 성격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못한다(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는 썽빙글리와 공유하는 개혁교회오의 오랜 명제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요컨대, 그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적 차이, 또는 무한한 거리를 갖는다. 그 신은 절대자로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그 거리를 넘어서 인간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감찰하고, 심판한다. 반면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왜소하고, 열등하며, 유한하다. 더군다나 인간은 최초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죄인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객체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하는 종(從)에 불과하다.

깁뵁에게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점에서 하나님은 지고한 초월자이다. 스토펙르가 깁뵁의 설교에 대한 연구 속에서 잘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분과 우리들 사이에는 “머나먼 거리”가 있다 그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사이에도 비견 할만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비교도, 어떤 유비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두뇌는 그분을 이해하거나 포착 할 수 없다¹⁷⁾.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에는 너무나 육적이고, 유한하며,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정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상상할만하지 못하다¹⁸⁾. 깁뵁은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지각으로서 그 분의 높은 위엄에 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존엄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거기에 다가 가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심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암흑 밖에는 볼 수 없는 불쌍한 맹인일 뿐입니다. 하나님편으로 봐서 그 분은 다가갈 수 없는 광명 가운데 거하십니다¹⁹⁾.”

깁뵁의 신론의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깁뵁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그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한 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Dieu qui est incompr?hensible)²⁰⁾”이다. 그는 말한다. “그 분의 본질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분의 존엄은 우리의 모든감각과는 멀리 떨어져서 감추어져 있다²¹⁾.”

결과적으로 깁뵁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나 본질에 대해서 알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은 경박한 사변을 즐기는 일일 뿐이다²²⁾.” 요컨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에 관해 알아내는 모든 것은 “헛된 몽상”에 불과하거나²³⁾,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²⁴⁾.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관심은 오히려 신의 역사(役事)와 활동을 통해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분이 어떻게 존재하는 지, 그분의 성격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²⁵⁾.”

그런 점에서 깁뵁에 따른 하나님은 “누구인가(Qui)”나 “무엇인가(Que)”가 아니라 “어떤가(Comment)”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을 그 존재에서가 아니라 드러난 바, 그 성격·방식에서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깁뵁은 하나님을 본질로서가 아니라 속성들(propri?t?s)로서 안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²⁶⁾. 알렉상드르 가녹지가 지적했듯이 바로 그 이유에서 깁뵁은 자신의 신론을 전개하면서도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즉자적으로(on soi)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본질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 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이끌어 나가는 지 등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²⁷⁾.

4.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가? 깁뵁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고 영원한 신비에 속한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거나 숙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감추어 놓은 비밀로서 인간이 알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알 수조차 없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자신을 직접계시하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까지 올라가서 그 분을 알고 이해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깁뵁은 말한다. “그 분 자신이 인간들에게 까지 내려와야 합니다.”²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적으로 계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까지... 도달 할 만큼

높이 올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합니다.²⁹⁾

칼뱅은 여기서 “적응(accomod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칼뱅은 그 용어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의 수준에 인간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자신을 적응시킴으로써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것처럼³⁰⁾” “부드럽고 친숙한 방식으로³¹⁾”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의 “범위와 능력에³²⁾” “적응”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응으로서 “작아지시기”까지³³⁾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영광중에 알려지시기를, 자신의 본질 가운데서 계시되기를 포기³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스토페르는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인간들의 수준에 적응한 것 뿐만 아니라 “변형(transfiguration)”하기 까지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³⁵⁾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자신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분에 대해 앞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³⁶⁾ 더 나아가서 스토페르는 칼뱅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변형을 넘어서서 일종의 “변질(d?naturation)”까지 시사했다고 보았다.³⁷⁾ “만일 하나님의 존엄이 그 분의 무한한 위대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냥> 드러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존엄에 암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구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본성(nature)을 바꾸듯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³⁸⁾”

계시의 그런 특성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가져 온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칼뱅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하나는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계시는 언제나 부분적일 뿐이다.” 또 하나는, 계시가 사람들에게 희미한 많은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필요에는 완전하게 충분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시는 인간들에게 “유익한(utile)” 것,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좋고 알맞는³⁹⁾” 모든 것을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⁴⁰⁾

그리고 그런 계시의 특성은 다음에 이어지는 상징과 언어의 문제들 속에서도 반복되어 <그리고 더 잘> 나타난다. 그 특성은 하나님과 계시의 특성으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직면한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 까지도 지시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5. 상징이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상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가 “상징(symbole)”이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그것과 대치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썼다는 데 있다. 그가 간혹 “symbole”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 신조(credo)라는 의미의 동의어로 사용한다.⁴¹⁾ 그런 점을 전제하면서 우선 원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이지를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상징이란 원래 “나누어진 것”을 의미했다. 가령 고대세계에서 군에 들어가는 가족과 어떤 물건을 토막내서 한 쪽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 재회할 때 그것을 맞춰보고, 상대가 자기 가족인지를 알아보기 하는 “나뉜 물건”이었다. 고대에는 군복무가 삼-사십년간 계속되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래서 상징이란 그것으로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실체인지를 알려주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칼뱅은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을 “symbole” 보다는, 혹은 그것 대신에 “signe(표시·표지·신호)”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썼다. 니콜 말레 역시 칼뱅이 그 두 단어를 거의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⁴²⁾ 그러나 칼뱅은 “상징”이라는 의미를 “figure(상·얼굴)”라는 용어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marque(표)” “sceau(도장)” “miroir(거울)” “pent ure(그림)” “chef-d'oeuvre(걸작품)” “th?atre(극장)”라고 쓰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뚜렷하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image(형상)”를 흔히 썼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인식하게 해 주는 도구, 즉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상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들에게 필수적으로 그 분의 계시를 매개 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다.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는 언제나 “상징”들로서, 그것을 매개로 자신을

알려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이고 이 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등 지각할 수 있는 “이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알려 준다는 것이다. 그 “이세상의 어떤 것” 다시 말해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 주는 그것이 바로 “상징”이다.

그러므로 상징은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상징은 그것 자체를 넘어서 신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지향하며, 동시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매개해 주는 일종의 중재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칼뱅은 그 상징을 “symbole”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더 흔하게 “signe” “image” “figure” “sceau” “marque” 등의 용어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칼뱅은 구체적으로 그 상징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점을 살펴보자.

우선, 칼뱅에 따른 상징은 자연이다. 자연은 창조주의 실재와 위대하심을 알려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이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의 표들 (marques)을 새겨 놓았다. 그 표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고상해서 세상의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른다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정도이다⁴³⁾.”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형상(image)으로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 주셨고, 그 형상 가운데서 자신을 가시적이 되게 하셨다⁴⁴⁾.” 그런 관점은 스토페르의 연구에 따르면 칼뱅의 설교들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거기서 “자연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실재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생생한 형상”, “생생한 그림” 또한 “거대한 극장”이며 “하나님의 작품들”로 간주된다⁴⁵⁾. 그런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바는 여러가지 그의 속성들, 즉 “덕성” “지혜” “정의” “능력” “위대성” “영광” “존엄” 뿐만 아니라 “선함” “탁월함”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성격을 알게 된다⁴⁶⁾.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는 상징으로서 자연을 택했으며, 그래서 자연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존재를 지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 “하나님의 형상” 즉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자연의 어떤 것들, 즉 특정한 개개의 자연물들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몸, 신체를 들 수 있다. 칼뱅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빌려서 “인간은 하나의 소유주”라는 언급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떤 고대철학자들이 인간을 소유주라고 불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지혜가 어떤지를 거기서 성찰하는 하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다...⁴⁷⁾”

뿐만 아니라 칼뱅은 인간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자연물들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은총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에덴동산에서 부터 자연의 특수한 어떤 것을 택해서 자신에 관해 알려주는 “외부적 표시(signe exterieur)”로 세웠다. 칼뱅은 생명나무에 관해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외부적인 표시들로서 우리들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민다.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올라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맛 볼 때 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⁴⁸⁾.”

또한 그런 상징은 “생명나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가 이미 다른 데서 지적했듯이, 칼뱅은 상징으로서의 자연물들을 매우 다양하게 언급했다. 그것들을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만 지적하면, 그것은 “성소·언약궤·제단, 여러 제물들이 놓여진 제사상”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무지개”,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게 했던 “하늘의 별들” 등이다.⁴⁹⁾ 것처럼 칼뱅은 어떤 하나의 자연물이 하나님의 외부적 표시로서 그의 존재와 뜻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말하자면 상징이라고 보았다.

6. 상징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그런 특별한 상징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사용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신적이거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인간 자신이 그것을 종교적, 혹은 신적 상징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칼뱅은 말한다. “우리의 육적 감각 밑에 예측시키거나 또는 그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감히 표시하지 못한다⁵⁰⁾”... 그는 인간이 세운 상징들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나님은 형상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더 적당한지를 살펴보지 않고, 우상숭배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상들·그림들·형상들, 그리고 다른 상징들 모두를 심판한다⁵¹⁾.” “성령이 인간들의 망상으로 발명된 모든 예배를 조잡하고 타락한 것으로서 배격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해서 자기들의 감각으로 파악해서 얻은 모든 견해는 그 견해가 항상 큰 오류 덩어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의 〈오류 덩어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⁵²⁾.”

요컨대,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것을 상징으로 세워서 자신의 영광과 의지와 능력을 증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상징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더군다나 그 상징은 하나님에 의해 그때 그때 선택되고 사용된 것이지 영구불변하고 고정된 상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보여주실 때의 그 무지개가 상징이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무지개가 다 신의 상징이 아니다. 하늘의 별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때의 그 별들이 상징이지,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는 않다⁵³⁾. 따라서 칼뱅에게 있어서 종교적 상징은 인간이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초월적인 세계를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구불변의 상징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믿고·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칼뱅은 그 점을 매우 중시했고 그런 오류에 빠졌던 과거와 동시대의 종교행태들을 비판했다.

그러므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된다. 칼뱅에게 있어서 상징들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징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즉, 상징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상징은 하나님을 지시하고·보여 주고·알려 주며, 그 분의 은총과 구원을 증거하고 매개한다. 그래서 그것은 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곧 실체, 즉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타내려는 의미 자체가 아니다. 칼뱅은 상징과 실체를 언제나 구별했다.

가령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상징들로서 자신의 현존을 드러냈다. 그러나 상징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거기에 매여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⁵⁴⁾ 또한 그는 1549년, 쥐히리 교회와 함께 발표한 “성만찬에 관한 일치신조”에서 말한다. “표시들은 선택된 자들이나 영벌을 받을 자들이나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실체는 오직 선민들에게만 주어진다⁵⁵⁾.” 역시 같은 신조 마지막에서 다시 강조한다. “성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교제에 대한 표지이고 담보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을 거기에 고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⁵⁶⁾.”

그런데 칼뱅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실체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간주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상징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상징을 너무 중시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성시하거나 절대화하는 일이었다. 칼뱅은 사람들의 그런 오류를 “하나님을 그 상징에 가두는 것(enclore 또는 enfermer)”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그 상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이다. 자연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울”이며, 그 분을 보여주는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존엄은 그것 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매개하는 것들 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을 거기에 “가두어서는” 안된다.⁵⁷⁾ 여기서 칼뱅은 인간의 그런 오류를 “가두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혼동한다(confondre)” “대치한다(substituer)”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어쨌든 칼뱅에게 있어서는 창조주와 “계시로 사용되는(r?v?latrices)” 피조물들 사이에는 어떤 비교나 어떤 유비도 있을 수 없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그 분에 대해 말하거나 그 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에 그 분을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무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의(하나님) 손바닥 안에 붙잡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 가운데 있는 그 거대한 불가해적인 본질, 그 엄청난 영광에는 지구가 큰 땅덩어리라고 해도 전혀 비교할 바 못됩니다⁵⁸⁾.”

칼뱅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리를 상징 속에 가두고, 그것들을 동일시해서 상징을 숭배하고 신성시함으로써 신을 경배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그런 우상숭배를 매우 심각하게 간주했다. 그런 오류는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고, 그 근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과 죄에 있다고 보았다⁵⁹⁾. 그래서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상징들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위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즉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 무력해졌다는 것이 깡뎡의 일관된 시각이었다⁶⁰⁾.

그처럼 상징은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이상숭배와 미신으로 타락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자연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예배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왜곡되기 까지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들이라는 거울에서 자신의 존엄과 불멸의 왕국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둔감해서 그렇게 분명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들이 아무런 소득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⁶¹⁾.”

7. 언어의 필요성과 말씀

그처럼 상징앞에서의 인간의 무능과 죄성을 깊이 인식했던 깡뎡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해야 했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 방식은 곧 하나님이 죄인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 직접적이고 더 친밀하며, 명료한 언어로 계시하는 것이었다. 깡뎡은 말한다. “...그는(하나님) 명확한 말을 덧붙혀 줌으로서, 구원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⁶²⁾” 즉,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징이나 표시, 신호로서가 아니라(또는 그것들에 덧붙혀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말”로서 계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로서의 계시, 즉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았다. 자연이나 자연 속에서의 상징들으로써의 계시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계약의 백성으로 삼은 유대인들, 그리고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다⁶³⁾. 그점에서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흔히 “특별계시”라고 불리게 된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계시 앞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과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깡뎡은 말한다. “인간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성찰해야 하지만,?세상이 하나의 극장으로 그들 앞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관람해야 하도록 명령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더 유익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것은 말씀에 귀를 세우고 주의깊게 듣는 일이다⁶⁴⁾.” 깡뎡이 설교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써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⁶⁵⁾.” “하나님의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작품들을 잘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써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느끼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과 무력함을 기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⁶⁶⁾.” 그만큼 깡뎡은 그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거기로부터 분명한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깡뎡에 따른 “언어(language)”는 하나님과 그의 뜻이 가장 잘 알려지고 전달될 수 있는 도구이자 통로였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즉, 인간의 언어로서 자신을 계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이제 사람들끼리의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신의 뜻과 존재를 담는 그릇이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였던 것이다. 그는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서 보여주려는 것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지적하고 생생하게 그려주었다...”⁶⁷⁾ 그 “언어”는 인간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었다⁶⁸⁾.”

8. 언어 역시 상징이다

언어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명백하게 증거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그릇이고, 그것이 전달되는 통로일 뿐이다. 물론, 언어는 다른 자연물들이 보여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친숙하며 충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만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경배하며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교의학에서는 “성경의 충족성(suffisance)”이라는 말로 표현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역시 “형상(image)”이고,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위하여 자연에서 택한 여러가지 상징들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깔뱅의 말들이 그 점을 잘 나타내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율법이나 예언서들, 복음서들이 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의 형상입니다⁶⁹⁾.”

깔뱅은 말씀이나 성경의 계시 역시 인간의 언어로 된 이상 하나의 상징이라는 점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자주 밝혔다. 그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며 “통로”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 높이 있고 숨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마치 그의 생생한 형상(image)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성찰합니다. 우리는 그 분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처럼 봅니다⁷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성찰하는 거울”이다⁷¹⁾.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적법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유일한 통로이다⁷²⁾.”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들에게 알맞는 거울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⁷³⁾.”

그같은 본문들은 하나님의 언어계시인 말씀의 총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깔뱅은 언어로서의 계시 역시 하나의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언어 역시 하나의 상징이므로, 그러나 탁월하고 인간에게 충분한 그것이 곧 계시자 하나님 자신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뜻도 아니다. 깔뱅은 말한다.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다가 온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의 부활의 목적이며, 그 <축복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해도 그 최소한의 부분이나 겨우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광명과 기쁨과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쳐도 그것이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이해력과 아주 멀고,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까지는 거의 상징(figure) 가운데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⁷⁴⁾.”

스토페르 역시 깔뱅의 여러 설교들에서 그 점을 통찰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성경과 하나님 사이에는 동질성(identit?)이 없고, 단지 유사성(similitude)만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의 생생한 형상 가운데서 처럼, 우리 손에 들어 있는 거울에서처럼 계시한다⁷⁵⁾”

그러므로 깔뱅에게 있어서 언어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의 “거리(distance)”가 개입된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언어는 아니다. 하나님은 언어 속에 담기지만 언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다. 혹은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성, 또는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시할 뿐 언제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언어 역시 하나의 상징이다.

9. 상징과 언어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바

그같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요청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언어를 포함한 상징 앞에서 상징이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상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 그 분은 창조주로서 그가 창조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어떤 것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또한 실재를 나타낸다. 자연 속에는 신과 신성을 보여주고 지시하는 특별한 상징물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더 분명하고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서 자신을 계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는 막연하고 불분명하게 앎으로써 빠지게 되는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통해야 한다. 더욱이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의 현실속에서 산다는 점에서 자연의 상징들로서는 필연적으로 그런 오류들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계시, 즉 언어로서 주어지는 특별계시가 주어진 것 아닌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외의 도움들을 찾지 말아야 한다⁷⁶⁾.” 바로 그것이 깔뱅의 시각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새로운 상징만을 집중하고, 그 것에 매달려야

한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 말고는 길이 없다. 거기를 통하지 않는 지식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 지식은 미신(superstition)일 뿐이다. 깔뱅의 관점에서 미신은 하나님이 제정한 계시, 그 상징이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작기 마음대로 신에 대해 상상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예배하는 것이었다⁷⁷⁾. 하나님은 나타난다.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이 세운 상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잘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점을 믿고, 그 분이 계시되는 상징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징은 단지 상징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점이다. 상징은 하나님을 잘 알려 준다. 자연계시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⁷⁸⁾. 그들은 자연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언어로서의 계시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하게 구원을 위한 지식을 알려 준다. 그래서 상징은 중요하고 더없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상징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상징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은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드러내려는 계시자체가 아니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글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서 나타날 수 있는 분이다. 그점을 간과하고, 상징자체에 집착하고, 상징자체를 신성시해서 섬기거나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이다. 깔뱅이 의미하는 우상숭배가 바로 그것이다. 즉, “주시는 분 대신 주어진 것을 섬기는 일”이다⁷⁹⁾.

그점을 가늠지가 성례전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처럼 잘 표현한 것도 없다 “상징들(signes)은 어느 쪽에서 가든지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안내하는 도로표시판이나 화살표와 같다. 사람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시판을 경배할 것은 없다. 방향표지판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거룩한 상징들에 대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⁸⁰⁾” 가늠지는 그 대답을 직접 깔뱅의 본문에서 찾아 온다. “...우리는 그것들(성례전의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들)을 우리 보화의 원인으로 찬미하며 경배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신앙을 성례전들에 고착시켜서도 안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이전시켜서도 안된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은 더 높이 올라가서 성례전들과 모든 보화들의 주인이신 분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⁸¹⁾.”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요청자는 바, 실은 무척 간단하다. 그것은 곧 “상징을 통해, 상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다. 계시는 언제나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 자연계시든 특별계시든 언제나 상징을 통한다. 상징을 통하지 않는 계시란 없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무한하고 영적이며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들의 지각과 인식 속에 포착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지각에 들어오는 것들 속에 담기거나, 그것들을 통해야 한다. 그것들이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상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상징 바깥에서 상징 이외의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고자 세우신 상징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아니다. 또 하나는 상징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다. 상징은 수단이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종착점이 아니다. 상징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상징이 지시하고, 상징이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나가는 말

우리는 위에서 살펴 본 깔뱅의 세계관과 신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정리할 수 있다.

- ① 깔뱅의 세계관은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는, 그리고 그 계시 사건으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 ② 그 세계에는 그런 하나님과 대응점을 이루는 유한한,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기까지 한 죄인이 있다.
- ③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했다. 그의 계시는 그의 존재의 특징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포착될 수 있는 매개물들, 즉 상징들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④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자신을 증거하려는 것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자연과 심지어는 인간의 신체 역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시라고 불리는 그런 자연의 상징들은, 그러나 유한한 죄인의 우둔함으로 인해 곧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잘못 사용되었다.

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그런 우둔함에 적용해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자신을 계시했다. 즉, 말씀으로써의 계시인 언어가 증거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식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다.

⑥ 드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역시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징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시하고 알려주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그것은 증거자이고 매개자일 뿐이다.

⑦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상징을 통해서, 상징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상징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며, 또한 상징에다 하나님을 고착시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처럼 정리되는 깔뱅의 세계관은 이미 언급했듯이 깔뱅 자신이 개혁했던 쥘네브, 그리고 그의 영향권내에 있었던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의 일부, 화란·스코틀랜드·헝가리 등의 유럽교회와 사회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대륙과 오세아니아·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교회와 신자들에게 전파되었다. 그 세계관의 영향으로 새로운 교회와 사회,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물론 깔뱅의 세계관이 전파된 세계들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고 특징적인 색채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에는 어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성격은 깔뱅 사상의 중심점들, 특히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 신의 계시와 상징, 언어에 대한 깔뱅의 특징적인 시각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살펴 본다.

첫째, 이 세상의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깔뱅주의 문화 속에서는 현실과 현실의 것들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기를 힘 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따르며, 그분의 구원을 향유할 수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과 현실을 버리고 피안의 세계로만 달려가려는 도피주의적인 신앙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의 사회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사람·돈·시간·제도·법률·질서·언어·문화 등을 존중한다. 그런 풍토 속에서는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 수 없다. 청교도들이 물질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보아서 근검절약하며 시간과 직업에 철저한 결과, 높은 수준의 개인적 삶과 사회를 이루었던 사실도 바로 그런 예들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둘째, 이 세상의 것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즉, 이 세상의 것은 역시 세상의 것일 뿐이다. 이 세상이 지시하고, 이 세상을 통해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존의 이해나 지식을 존중하면서도 또 다시 다가와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열려있게 된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삶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식과 삶에 개방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과학, 기술을 개발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깔뱅 영향권의 나라들이 오늘날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 점은 위의 둘째 점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한 가치, 일시적인 가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 밖에는 지니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이 세상의 것일 뿐이다. 그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 할 수 없다.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할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 어떤 국가, 어떤 통치자도 신적인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신성모독이다. 깔뱅의 교회들은 그런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오!”를 말하며,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복종하기 보다는 그 모든 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 깔뱅주의 교회들이 절대체제들 속에서 고통스러운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로, 이는 위의 셋째 점이 교회 안에 적용된 것으로서 교회나 성직자들의 권위 역시 제한적인 권위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칼뱅의 교회들은 굳어지고 정체되며 절대화할 위험이 큰 성직주의를 거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칼뱅주의 교회들이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다. 부연하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칼뱅주의 교회들은 목사나 장로 등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에 대해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 역시 한 곳에서 오래 시무함으로써 빛어지는 부작용, 특히 권위의 짐 중과 고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칼뱅주의의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개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에 모범이 되고 지침이 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칼뱅의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여러가지 점에서 지적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한가지만 제기해 본다. 현대세계와 인간을 지배하는 풍조는 바로 물질만능과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교회들 역시) 이 세상의 것만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려 있다. 돈·세속적인 성공·인기·이 세상에서의 직접적인 보상, 그런 것들만 가치있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다 타산적이고 평면적이며 직접적이거나 즉흥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즉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상대화시키는 지고하며 영원하며 영적이며 깊이의 차원에 속하는 것들, 즉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들은 초월적인 것에 닫혀있다. 초월적이지 못하므로 그들은 자기를 벗어날 줄도, 자기를 깊이 성찰하거나 비판할 줄도 모른다. 그냥 평면적이고 습관적이며, 그때 그때의 즐거움과 만족만 좇아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다른 것”,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배척한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비판도 없이, 어떤 변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그것이야 말로 현대인과 현대세계의 자기 이상화, 자기 신성화가 아닐 수 없다.

그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우상타파(Iconoclasme)”이다. 그것은 신중심적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해서 현대사회에 발언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를 통해 현대세계에 영적인 깊이, 혹은 초월성과 참된 변혁의 차원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본다. 바로 그것이 칼뱅이 자기 시대에, 그리고 칼뱅의 정신적 계승자들이 각기 자신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칼뱅의 사상과 그의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다시 꺼내서 펼쳐볼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 주

- 1) J. Hoffmeister (Hrsg.),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Begriffe*, Hamburg, 1955, p. 661.
- 2) L. Febvre, *Combats pour l'histoire*, Paris, 1953, p. 140. Cf. R. Stauffer, *Interprètes de la Bible—Etudes pour les réformateurs du XVI^e siècle*, Paris, Beauchesne, 1980, p. 9.
- 3) 앙드레 비엘레는 순수하게 영적이고 교리적인 종교개혁에 도덕적인 엄격성이 가미된 이유를 바로 당시 쥘레브 시민들의 도덕적 문란에서 찾았을 정도로, 당시 사회는 비도덕적이고 향락적이었다. A. Biéler, *L'homme et la femme dans la morale calviniste*, Genève, Labor et Fides, 1963, P. 8-9, 15 s..
- 4) J. Cag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 칼빈-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197-199.
- 5) A. Biéler, op. cit., 그리고 특히 같은 저자의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Thèse présentée à l'Univ. de Genève*, Genève, Georg & Cie S.A., 1958.
- 6)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종선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세계, 1987.
- 7) E. Doumergue, *Le caractère de Calvin*, 이오갑 역,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p. 121-122.
- 8) J. Cadier, op. cit., ch. 7.
- 9) A.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op. cit., p. 128.
- 10) 그런 시각은 특히, E. Fuchs, *La morale selon Calvin*, Paris, Cerf, 1986, p. 170s.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11) “갈뱅 사상의 중심점이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 논란은 크게 “신중심이나” “그리스도중심이나”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갈뱅의 사상이 기본적으로는 “신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예를 들면, F. Wendel, Calvin, sources et ?volution de sa pens?e religieuse, 2e ?d., Genn?ve, Labor et Fides, 1985. P. Gisel, Le Christ de Calvin, Paris, Descl?e, 1990 등. 갈뱅신학의 중심점에 관해서는 이오갑, “칼빈신학의 정수와 한계는” 목회와 신학, 87권 (1996년 9월호) 참고.

12) M. Luther, “Controverse tenue ? Heidelberg”, in Oeuvres I, Gen?ve, Labor et Fides, 1957, p. 125, 136.

13) J. Cadier, Calvin, Paris, P.U.F., 1966, p. 1-2, 같은 저자의 op. cit., p. 101-103. 그리고 이오갑, op. cit., p. 52.

14) Institution I, 11/2, 13/1 etc..

15) Institution I, 13/1.

16) Institution I, 8/1, 11/1, 13.

17) R. Stauffer, Dieu, la cr?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dication de Calvin, Borne, Peter Lang, 1978, p. 20. 이 책은 저자의 op. cit.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Dieu, la cr?ation... 으로 줄여 쓴다.

18) Institution I, 13/21.

19) 9e sermon sur le ch. 4 du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202-203.

20) Institution II, 8/17.

21) Institution I, 5/1.

22) Institution I, 2/2.

23) Institution I, 11/4.

24) Institution I, 13/3.

25) Institution I, 2/2.

26) Cf.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105 s..

27) A. Ganoczy, Calvin, th?ologien de l'Eglise et du minist?re, Paris, Cerf, 1964, p. 68.

28) 103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V p. 521.

29) 30e sermon sur Daniel, Opera calvini XLI, p. 643. 이하, 이 단락에 나오는 갈뱅의 설교들의 인용은 Stauffer, Dieu, la cr?ation...에 많이 의존했음.

30) Cf. 59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606 etc..

31) 31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253.

32) 150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p. 402.

33) 52e sermon sur I Timoth?e, Opera calvini LIII, p. 625-626, p. 21.

34) 143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p. 304, 17e sermon sur le Psaume 119, Opera calvini XXXII, p. 682.

35)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22.

36) 58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591. Cf. 20e sermon sur J?r?mie, Supplementa VI, p. 138: “그분은(하나님)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고자 자신을 더 잘 주기 위해서 자신을 변형시키십니다.” 또한 4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II, p. 62-63: “...우리가 그분에게 도달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친숙해지셨고, 변형된 것처럼 되셨습니다.”

37)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22.

38) 24e sermon sur Daniel, Opera calvini XLI, p. 572.

39) 19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II, p. 240, 43e sermon, p. 534, 157e sermon, XXXV, p. 481 etc..

40)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22.

41) 특히 Institution II, 16, IV, 1/20 등.

42) N. Malet, Dieu salon Calvin, des mots ? la doctrine, Lausanne, Edition de l'Age d'Homme, 1977, p. 14.

43) Institution I, 5/1.

44) Commentaire, Gen?se, Ed. Labor et Fides, Pr?face.

- 45)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28.
 - 46) Ibid., p. 29.
 - 47) Institution I, 5/3.
 - 48) Commentaire, Gen?se 2:9, p. 49
 - 49) 참고. 이오감, “칼빈의 자연사상” 기독교사상, 1993년 4월, 5월호. 특히, 5월호 p. 120 이하.
 - 50) Institution II, 8/17.
 - 51) Institution I, 11/1.
 - 52) Institution I, 5/12.
 - 53) 이오감, “칼빈의 자연사상” op. cit., p. 121-122.
 - 54) Institution. I, 11/3.
 - 55) “Accord sur les sacrements”, in Calvin, Homme d'Eglise, Paris/Gen?ve, “Jesera/Labor”, 1936, p. 139.
 - 56) Ibid., p. 142.
 - 57)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30.
 - 58) 150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p. 390, Cf. Ibid..
 - 59) Institution I, 11/8.
 - 60) Institution I, 5/11.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31-32.
 - 61) Institution I, 5/11.
 - 62) Institution I, 6/1.
 - 63) Cf. Institution I, 6/1.
 - 64) Institution I, 6/2.
 - 65) 142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p. 297-298.
 - 66) 17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85. Cf.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53, 73.
 - 67) Institution I, 6/3.
 - 68) 25e sermon sur Esa? 13-29, Supplementa calviniana II, p. 231,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77 재인용.
 - 69) 33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VI, p. 281.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73의 인용문을 우리의 문맥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 70) 191e sermon sur Deut?ronome, Opera calvini XXIX, p. 111.
 - 71) Institution III, 2/6.
 - 72) Institution III. 21/2.
 - 73) 138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IIIV, p. 247.
 - 74) Instution III, 25/10.
 - 75) R. Stauffer, Dieu, la cr?ation..., p. 54.
 - 76) Institution III, 20/21.
 - 77) Institution I, 5/2, 4/3, III, 20/22 etc..
 - 78) Institution I, 5/1.
 - 79) Institution IV, 17/36.
 - 80) A. Ganoczy, op. cit., p. 119.
 - 81) Institution IV, 14/12. Ibid., p. 119-120 재인용.
-